

■ **주요 뉴스:**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실질적인 경기회복 위험 요인으로 부상

- IMF 총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최근 전망치(6%)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
- 미국 재무장관, 부채한도 확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
-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공급 병목 완화 등으로 고물가 상황은 해소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불구하고 증시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

주가 상승[+1.1%],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기술주 등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 지수는 금융주와 일부 기술주의 양호한 실적 전망 등으로 1.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9월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세 유지되는 가운데 소폭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부채한도 불확실성과 고물가 지속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비슷한 이유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87.8원, -1.7원) 0.1% 하락, 한국 CDS 보합

		10/5일	10/4일	전일대비			10/5일	10/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345.7	4,300.5	1.05%	국채 금리 10y	미국	1.53%	1.48%	5bp
	유럽	456.03	450.77	1.17%		독일	-0.19%	-0.21%	2bp
	중국	휴장	휴장	-		한국	20bp	20bp	0bp
	일본	27,822	28,445	-2.19%	CDS 5y	중국	51bp	47bp	4bp
	한국	2,962.2	휴장	-1.89%		EMBI+	-	379	-
환율	달러지수	93.98	93.78	0.22%	위험 지표	VIX	21.30	22.96	-7.23%
	유로화	1.1598	1.1621	-0.20%		WTI유	78.93	77.62	1.69%
	엔화	111.46	110.93	-0.48%	원자재	구리	417.9	423.9	-1.42%
	위안화	휴장	휴장	-		금	1,760.2	1,769.6	-0.53%
	원화	1,188.7	휴장	0.06%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실질적인 경기회복 위험 요인으로 부상

- 최근 세계적으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 이는 각국의 화석연료 사용 제한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 주요 원유 및 가스 생산 국가의 소극적인 공급 확대, 경기회복 및 산업 고도화에 따른 수요증가 등에 기인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향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 및 성장 둔화 우려가 확산. 중국은 전력 부족 여파로 최근 정상적인 생산시설 가동에 차질이 발생. 또한 계층 간 불평등 심화와 삶의 질 저하 등도 초래할 전망
- 골드만 삭스의 Jeff Currie는 전통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었고 신재생 에너지 시대의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Allianz의 Mike Riddell은 최근 급격한 국채금리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증폭을 의미한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총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최근 전망치(6%)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국가별 성장 차별화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이전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또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여파가 주요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

■ 미국 재무장관, 부채한도 확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

- 옐런 장관은 10/18일을 채무불이행 방지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으며, 부채한도 확대 실패 시 경제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10/6일 부채한도 확대 표결에 나설 계획이나, 공화당은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 무디스는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확대 합의에 성공하여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

■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공급 병목 완화 등으로 고물가 상황은 해소될 전망

- 에반스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공급 병목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결국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 또한 금년 인플레이션이 4%에 이를 수도 있지만, 이는 통화정책이 아닌 실물경제의 수요와 공급 문제라고 지적

■ 유럽위원회 위원장, EU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천연가스 보유를 검토할 방침

-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10월말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전기가격이 천연가스에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 최근 전기가격 상승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러시아의 생산 감축도 문제라고 지적

■ ECB 총재, 인플레이션 기대와 임금 동향을 주시

-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혼란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 반면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ECB 역시 과잉 대응을 자제할 것이라고 첨언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공급 혼란 등이 일정 기간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

■ 일본은행 총재, 탄소배출 축소·에너지 절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방침

- 구로다 총재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향후 사회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과제라고 지적

■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동결. 지속적인 경제회복 기대

- 주택가격 상승에도 코로나 19에 따른 제한조치 등을 고려하여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한다고 설명.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무역수지(억달러): -733, 7월(-701), 예상치(-705)
- 미국 9월 ISM 서비스 경기지수: 61.9, 8월(61.7), 예상치(60.0)
- 미국 9월 마켓 종합 PMI(확정치): 55.0, 8월(55.4), 속보치(54.5)
- 유로존 9월 마켓 종합 PMI(확정치): 56.2, 8월(59.0), 속보치(56.1)

■ 주요 경제 이벤트(10/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ADP 민간고용, 유로존 8월 소매매출, 독일 8월 제조업수주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일자리 회복에 더 주력할 필요 - Financial Times

(Fed policy must not halt the job recovery)

- 여타 중앙은행들과 구분되는 연준의 특징은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 책무. 경제활동참가율의 회복이 실업률 하락을 수개월~수년간 후행한다는 점을 간과할 경우 연준은 이중책무 중 고용보다 물가에 치우치게 될 우려
-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을 떠났던 인력들의 복구가 보육활동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아닌 실업률 수준에만 만족해 연준이 고용보다 물가에 치우치게 되면 여성, 유색인종,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고용회복을 저해할 가능성
- 최대 고용의 공식적인 목표치가 부재한 상황도 연준의 정책수행을 물가에 치우치게 하는 요인. 당국이 핵심생산인구(25~54세)의 취업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

■ 미국의 서비스업, 델타변이 감소 불구 회복은 상대적으로 느릴 가능성 - WSJ

(Delta's Loss Is Service Economy's Gain—Up to a Point)

- 미국 9월 ISM 서비스경기지수는 61.9로 전월 61.7에서 소폭 상승. 이는 델타변이 확산이 9월초 정점을 보인 후, 둔화하는 과정에서 낙관적인 견해들이 반영된 결과. 하지만 델타변이 확진자 감소세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
- 아울러 향후 코로나 19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출근 일수 감소, 원격 의사소통 확대에 따른 출장 감소, 새로운 계절적 변동 등도 서비스업 회복에 지연 요인
- 이에 서비스업과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코로나 19로 인한 개별 업종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필요

■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충격,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더 치명적 - Financial Times

(Emerging markets' tough test)

■ 중국의 에너지 위기 방지, 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혁 노력이 요구 - 블룸버그

(The Government Blinked First in China's Energy Crisi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